

PC 조달 단가계약의 불합리성

-PC 조달 단가계약 년2회→업계경영악화-

김성복 과장 / 본회 정보산업과

조달청의 하반기 단가계약 (PC) 실시에 대하여

1. 컴퓨터 산업의 중요성

최근, 2년 남짓 남은 21세기에 정보화사회 구현을 통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아래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각 선진국들은 국가정보화산업에

국력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다.

이 시대에 정보산업 즉, 컴퓨터산업은 농경사회에서 농기구, 공업화사회에서 산업기계의 역할처럼 정보화사회에서 핵심도 구이며 수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 및 시장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로인해 향후 세계 컴퓨터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70년대

이후 97년까지 연평균 10.6%의 성장을 지속해 왔고, 이 성장세는 2000년대까지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컴퓨터산업의 특징은 고도의 두뇌와 기술이 집약된 산업이므로 부존자원이 빈약하지만 잠재 인력이 많은 우리 산업 여건상 최적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전략산업화가 매우 필요한 때인 것이다.

(단위 : 백만 \$)

지역별시장	년도			년평균 성장률 (%)	
	70	97	2010	70/97	97/10
세계시장	199	3,050	11,001	10.6	10.4
미국	72	1,175	4,012	10.9	19.9
유럽	57	816	2,695	10.4	9.6
일본	41	658	2,401	10.8	10.5
기타	29	401	1,623	11.0	11.4

자료 : YEAR 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98

2. 우리 컴퓨터산업의 현주소

우리나라 컴퓨터산업은 80년대 중반부터 시작, 90년도까지 년평균 43.2%씩 매우 높은 성장을 해왔으나, PC 산업화 초기에 적극적인 기반조성 미흡과 기업의 내수중심 사업추진 실패 등으로, 70여개사에 달했던 제조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도산되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5개사만이 살아남아 컴퓨터업계의 명맥을 이어 오고 있는 실정에 있다.

산업구조상에서도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선진국 및 경쟁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가운데 97년도 컴퓨터산업 수출을 기준으로 전자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36.3%, 대만이 49.7%, 싱가포르가 48.4%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2.4%의 낮은 점유도를 볼 수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IMF에 의한 외환위기 여파로 인해 극심한 내수불황 등 최악의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 비중이 75% 이상 되는 내수시장이 98 상반기에 52.4% 감소되고 있고, 반면 수출은 70.1% 증가했지만 아직 채산성이 낮아, 기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 어려움은 핵심텔레텍, 태일정밀, 큐닉스, 제일정밀 등이 부도 등으로 위기에 몰리고 있으며 대기업은 PC사업부의 구조조정 등으로 20-30%씩 인원

감축을 해오고 있으며 현대전자의 PC사업부는 멀티캡으로, LG전자 PC사업부는 판매법인으로 LG IBM에 귀속시키는 등 PC사업을 완전히 독립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 컴퓨터산업의 당면대로 및 문제점

우리기업의 PC 판매구조를 살펴보면 내수가 75%, 수출이 25%로 대부분 내수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중 25%-30%가 행정전산망용PC수요로 공공기관에 판매되고 있다. 최근처럼 내수불황의 시기에 있어서 행망용수요는 기업의 사활이 걸려있는 것이다.

행망용 PC를 공공기관에 조

(컴퓨터산업 수급현황)

(단위 : 백만 \$)

구 분	1985	1990	1997	년평균 성장률	
				80년대	90년대
생산	530	3,186	7,921	43.2	13.9
수출	402	2,178	5,896	40.2	15.3
시판	109	1,131	2,344	59.7	11.0

(단위 : 백만 \$)

구 분	미 국	일 본	한 국	대 만	싱가폴
컴퓨터(A)	379	185	51	214	322
전 자(B)	1,045	1,073	412	431	665
A/B(%)	36.3	17.7	12.4	49.7	48.4

주: 미·싱가폴은 '96년치.

자료: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98

달, 공급하려면 필히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단가계약에 참여하여 가격과 가격에 대한 조달가격을 결정하게 되어있다.

PC의 경우에는 95년 이후 제품의 Life Cycle 단축과 정부 예산 감축이라는 명분아래 단가계약 실시횟수 1회(/년)에서 2회(/년)를 실시를 해왔으나 이는 기업의 출혈경쟁을 통하여 2회에 걸쳐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업의 경영구조를 악화시켜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기업 및 학생용 PC 수요가 52.4% 감소로 공장가동율이 50%에 지나지 않아 부품 재고누증 상태에서 기업은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출혈경쟁이 더욱 기승을 부릴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 전체가 공멸할 위기에 있는 것이다.

이 출혈경쟁의 여파는 96년 경우 상반기에 PC 1대당(통일규격) 918천원이었던 제품이 하반기에 24% 하락된 700천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었던적이 있으며, 97년의 경우에는 정부조달가격이 기업측면에서는 대당 200천원 썩의 출혈가격이었다. 단가계약 1회 실시시 기업의 부담은 매우 커 20개 모델기준 보증보험 수수료, 시험수수료 등이 520(백만원)과 소요인력도 모델당 15명, 소요시간은 1200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조달청에서도 년2회 단

가계약이 반드시 유리한것만은 아니며 현 제도상 특정품목에 한해 임의로 년2회 실시가 바람직한것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관련법령에 실시회수에 대한 규정도 없고 해석상으로는 당해년도 개념이기 때문에 년1회 실시가 원칙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계약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품목간 형평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PC는 년2회, 복사기 등 사무기기 1회) 그리고 공급자의 경쟁여건 변화에 따른 2차계약에서 정부는 불리한 가격으로 결정될 소지도 있는데 금년의 경우 1차계약(4월)시와 2차계약(10월 예정)시 사이에 기술혁신으로 1차계약때 금액으로 고성능화 된 제품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년2회 계약시는 정상적인 경우 1차계약(166MHz)시에 비해 2차계약(233MHz)시는 계약단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4. 건의사항

상기의 애로 및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조달청은 98년 올해에는 4월에 체결된 가격으로 연말까지 조달공급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99년 이후에는 년1회의 실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 1회의 실시는 아래와 같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단가계약 1회 실시라도 현 조달공급시스템으로 충분히 정부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 단가계약후 고시의 내용이 사양은 CPU 166MHz 이상, 20배속 이상, 모니터 15" 가격은 업체별로 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 사실상 컴퓨터 핵심부품으로 속도의 기능을 갖고있는 CPU에 대한 인텔의 개발공급정책에 따라 단가계약후 얼마되지 않아 계약 당시에 가장 낮은 사양("예"166MHz)은 대부분 단종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어, 동일 가격에 상위기종(233MHz급)이 실수요기관에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리고 많은 실수요기관들이 구매시기에 시장가격 재조사 등을 통해 재입찰을 실시하여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정부가 염려하는 예산절약이 기술 및 시장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 동일기종의 행망용 PC가격(116만원)과 민수용 가격(156만원)은 25%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일반인이 동일 가격으로 동기종을 구매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 시장 실정이며, 최근 내수불황이 악화되면서 민수용 구매자들이 행망용 가격으로 공급요구를 하고 있어 우리 PC업계

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둘째, 상반기 계약 물량에 대한 실수요기관의 구매저조로 재고자재발생→PC업계 경영 수지 악화 되고 있다.

- 상반기 계약에 참가한 업계 (대기업, 중소기업 포함한 16개사)의 계약 물량이 189,000대 임에도 7월말 현재 공급된 물량은 80,000대 수준으로 42%을 공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PC 참여기업은 또 다시 금융부담 및 인력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처해있다.(금융부담: 770억원, 인력(국내영업 등): 20-30% 구조조정)

셋째, 빈번한 단가계약 실시는 자연스러운 출혈 경쟁 유도로 산업발전에 주된 폐해 요소가 되고 있다.

- 조달청의 최저가 입찰제도는 정부예산은 어느 정도 절감되었을지 몰라도 우리 PC산업은 업계간 출혈경쟁으로 완전히 낙후 산업으로 전락될 위기에 있다.(86년 수출액: 703백만\$, 97년 수출액:221백만\$, 97년 기준 대만대비 30배 정도 낙후)
- 단가계약 실시는 제품사양이 완전히 변화된 환경(사양 upgrade 혹은 환율상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격하락(-20% 수준)을 유도하게 됨은 물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부대경비, 인력소요 등이 현 IMF시기에 기업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넷째, 향후 정보화사회의 국가 전략 품목임을 인정하면서도 타 품목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나고 있다.

- 기술 특성상, PC와 비슷한 팩시밀리, 복사기의 경우 년 1회의 단가계약을 실시함에도 PC, 프린터는 년 2회 실시하여 가격하락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 PC의 기술변화가 속도, 기억용량, 하드용량 등에 의해 민감하게 결정지어 지는 것처럼 팩시밀리, 복사기 등도 속도, 해상도, 감열방식에 의해 기술변화를 꾸준히 피하고 있음에 따라 기술추세는 각 품목 공히 가격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기술변화 이외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달청은 눈앞에 보이고 정부 예산절감에 연연치 않고 PC산업기반 구축이라는 대명제아래 년 1회의 단가계약을 통하여 PC산업회생에 일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가격하락(95년 이후)

95. 8. 4	96. 5. 8	96. 12. 4	97. 6. 25	98. 4. 10
1,199(천원)	918(천원)	700(천원)	850(천원)	1,160(천원)
	(-23%)	(-24%)	(+21%)	(+36%)
			↓ 사양 업그레이드	↓ 환율상승 (환율 1,400원대)